

더 싸고, 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온라인 중고서적 거래시장, '북코아'

'북코아'는 책거래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온라인 서적거래소로, '중고서적', '품절도서', '새 책' 등 다양한 책들을 개개인이 직접 내놓고 팔 수 있는 곳이다. 2005년 8월 문을 열었고, 현재는 일반인은 물론 출판사, 중고서점 등이 입점해 중고서적을 사고팔고 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책만 104만5426권, 회원 수만도 29만5182명에 이른다.

'북코아' (www.bookcore.co.kr)는 (주)샤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서점으로, 대부분 서적 가격이 일반서적의 20~40%로 책정되어 있으며, 회원 가입만으로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북코아' 홈페이지는 거래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거래를 도입했다. 안전거래는 대부분의 옥션이나, 홈쇼핑 등에서 이용하는 중간 거래방식으로, 구매자가 결제금액을 중개자에게 위탁하고, 물건을 받은 이후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북코아'는 그 자체가 거래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직접거래 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임시로 보관하고 일괄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돌려주는 '위탁판매'와 A급 수준의 도서의 경우에는 거래가로 구입해 금액을 입금해주는 '우선구매'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북코아'에는 기존 중고책방들이 입점해 자신들의 책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들도 소규모이지만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홈페이지 상단을 보면 거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제 판매된 책의 내역을 그대로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북코아'는 점차 늘고 있는 '위탁판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천에 창고와 고객센터를 마련했다. 자체적으로도 대부분 A급 도서들만 수집해 판매하며, 중고책 거래자들 역시 문제가 있는 책은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 '북코아'는 '고서' 라던가, '잊혀진 책', '추천서적' 등 테마를 갖춘 마케팅으로 중고서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1인 출판이나, 중소출판사들을 위한 마케팅 창구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 북코아에서 책 사고 팔기

책을 판매하는 방법

- 1 회원가입 후 책내놓기 메뉴를 클릭하고 팔고자하는 책의 정보를 입력한다.
- 2 판매할 책이 여러 권인 경우 '보따리판매'를 이용해 한꺼번에 판매한다.
- 3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에게 판매가 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발송되며,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일을 받은 후 책을 배송한다.
- 4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한 이후, 북코아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대금을 e-머니, 현금으로 지불한다.

- 1 로그인(회원가입) → 2 책내놓기 → 3 기본정보/기본배송정보 책기입 → 4 책 등록 설명 판매종류선택 → 5 도서상세조회기입 → 6 입력하기

책을 구매하는 방법

- 1 회원가입 후 중고서적 및 미니북상에 접속한다.
- 2 검색창에 도서명, 저자, 출판사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도서명을 기입한다.
- 3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도서를 클릭하고 장바구니 또는 관심도서에 담는다.
- 4 주문하기를 클릭하고, 결제한다.
- 5 구매도서를 수령한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구매결정을 한다.
- 6 구매결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입금된다.

- 1 로그인(회원가입) → 2 검색창(찾기&자세히찾기) → 3 구매도서선택 → 4 바구니담기 → 5 주문하기 → 6 결제하기 → 7 배송완료 → 8 구매결정하기